

## 나도성 본부장 “한국기업의 신전략” 출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국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국제경영의 주체인 기업은 미시적인 경영학 이론에는 상당히 밝지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정부 정책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반면, 정부 관료들은 거시적인 국민경제나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 개별기업의 경영행태에 대한 이해는 미흡하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 양자의 이해 불일치 현상은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영학 관점 차이와 비교될 수 있는데 경영활동 및 정책 결정과정의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나도성 중소기업청 본부장이 저술한 <지구촌을 향한 한국기업의 신전략>은 산업현장에서 국제경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입장과 국제기업의 경영환경의 조성과 관련한 제도 형성을 담당하는 정부 입장을 최대한 좁혀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로, 글로벌화의 진전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영을 지향하는 국제기업의 입장과 국민국가를 책임지는 정부의 입장 차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또 국제기업과 국민국가를 책임진 정부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면서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가기 위한 국제기업의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 방향으로 <국제경영이론+국제경영전략+국제경영정책>의 삼각축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21세기 소용돌이치는 환경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시장적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기업의 신전략>은 저자가 과학기술처, 산업자원부 등에서 무역, 산업, 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행정을 담당하며 30년 가까이 고민하고 대학원 등의 강단에서 얻은 새로운 사실들이 어우러져 있다.

나도성 본부장은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과학기술처,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무역, 산업, 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행정을 담당했고,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7/06/22>